



발달장애인 시민권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시민권 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I 토론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12. 7(금) 14:00~16:30
- 장 소 : 대구인권사무소 교육센터(호수빌딩 지하1층)
- 참 석 : 100여명(전문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 유관단체,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좌 장 : 이정미(대구경북연구원 박사)
 - 발표 및 토론자(5명)
 -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활동가)
 - 조민제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 성명진 (발달장애여성연구원 손잡다 원장)
 - 강명숙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
 - 나호열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II 주요 토론내용

-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권리(문윤경)
-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시민’이 되어 ‘자랑스러운 대구’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조민제)
- 발달장애인과 관계 맺기(성명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바라보는 지원체계
- 대구시 발달장애인 주요정책 및 방향(강명숙)

III 토론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토론 결과 주요사안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 추진

토론 참여자 발표

【발표 I】 문윤경(대구피플퍼스트 활동가)

□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권리

- 발달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평등하게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음.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인 대구피플퍼스트 지원이 꼭 필요
 - 대구피플퍼스트 육성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부모님이나 시설교사에 의지하는 것 보다 스스로 활동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제공 필요
 - 대중교통 이용방법, 동사무소·은행·병원 이용방법 등
- 선거 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제공 필요
-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및 일한 만큼 급여 받을 수 있어야 함
- 각종 정부회의나 위원회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석, 회의 시 조력인 지원 및 읽기 쉬운 자료 제공 필요 등

【발표 II】 조민제(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시민’이 되어 ‘자랑스러운 대구’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권리는 보장되어질 때 권리이다.
- 시민권 보장의 핵심은 당사자의 ‘참여’임. 발달장애인법 시행(15.11월) 이후 발달장애인에 관한 지원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일련의 변화 속에 당사자의 참여는 없었음
 - 발달장애인을 서비스 수혜자, 대상자로만 생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 방안 검토
 - 대구피플퍼스트(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등 각종 연구사업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여 및 편의제공 등
- 대구시에 요청 사항
 -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읽기 쉬운 자료발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도전적 행동을 지닌 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지원센터 구군별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5개년)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 환경 조성, 관련사업 예산 연차적 증액 등

【발표Ⅲ】 성명진(발달장애여성연구원 손잡다 연구원장)

□ 발달장애인과 관계 맺기

- 자조모임의 원칙과 배경
 - (정상화)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누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와 경험이 주요 목적
 - (지원원리) 조력자의 지원을 통해 자조모임이 발전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
 - (자조조직) 사회적 편견, 억압에 대한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단초가 되어 옹호조직으로 확대
- 여가, 배움, 권리옹호 등 자조집단 모임 주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임
- 자조모임 기능 : 소속감 증진(고립감 해소), 자존감(행동과 사고에 긍정적 경험), 이타성과 상호작용 경험(공감적 이해)
- 자조모임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회, 피플퍼스트 대회 등)
- 중요한 것은 제도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발표Ⅳ】 강명숙(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

□ 대구시 발달장애인 주요정책 및 방향

- 현황 : 대구시 등록장애인은 '18년 10월말 기준 122,343명으로 대구시 인구의 4.9% 정도, 2018년 일반회계 예산은 총 5조 9,317억원, 이 중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2,237억원으로 市 전체예산 대비 3.77%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임

가. 연도별 전체 등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등록 장애인	116,839	116,567	115,983	115,694	117,111	119,766	122,343	
발달 장애인 (비율)	8,697 (7.4%)	9,344 (8.0%)	9,632 (8.3%)	9,953 (8.6%)	10,286 (8.8%)	10,598 (8.8%)	10,896 (8.9%)	

나.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복지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시 전체예산 (일반회계)	4조 6,772	4조 9,906	5조 4,010	5조 5,461	5조 9,317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1,619 (3.46%)	1,835 (3.68%)	1,986 (3.68%)	2,057 (3.71%)	2,237 (3.77%)	

- 대구시 발달장애인 주요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성과
 -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관련사업 추진 현황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등 21개 사업 635억원
 -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16. 2. 1 전국 최초)
 - 대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 ('18. 3. 8 광역단위 최초)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구군별 1개소) 및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실시
 - 중장년 발달장애인 특화 주간보호시설 시범운영 ('18년 신규) 등
 -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20개소(발달장애인 1,108명 거주)
 - 주간보호시설 43개소(발달장애인 539명 이용), 직업재활시설 44개소(발달장애인 928명 참여)
- 향후 정책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 부모 교육사업 등) 신규 추진
 - 피플퍼스트 육성지원,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추진 등

【발표 V】 나호열(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바라보는 지원체계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특화된 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체계 마련 시 검토 방안
 - 영유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기 개입 필요
 -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있어 첫 3년은 뇌 발달과 가족을 포함한 주변과의 관계 개발은 너무나 중요한데 무상교육·보육이외의 지원은 적은 실정임
 - 발달장애인 대상 의료지원체계 확충
 - 발달장애인은 진단과정에서 여러기관을 돌아다니며 진단시기가 늦어지고 적절한 의료지원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거점병원 확충 필요함
 -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대구에도 설치 필요
 - 현재 서울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 시범운영
 -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설치 필요
-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폭력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 지원,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116건, 공공후견 120여 건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전국 시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음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좌 장】 이정미(대구경북연구원 박사)

-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데요, 자유롭게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방청객(대구피플퍼스트 활동가 등 2명)

1. 발달장애인은 일을 하면서 왜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가? 발달장애인의 월급을 올려 주시기 바람
2.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4년째 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은 계속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 도서관 사서보조 일을 계속하고 싶으며 일한 만큼 월급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람

《답 변》

■ 강명숙(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

- 일자리 부분은 자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하는 복지일자리사업이 있고,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유형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복지일자리 부분이라고 생각됨.
- 복지일자리 경우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는 기업이 아니고 시설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수익금에 따라 달라짐.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라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폐지되면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임. 보건복지부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함.

■ 나호열(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이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 질 때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법에 기본 소득보장 문구를 반영하자고 요구했으나, 그렇게 되면 기본 소득보장(최저임금) 기준에서 덜 받는 금액만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엄청난 정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소득보장 내용은 빠지게 되었음

【질문 2】 방청객(유관기관 및 피플퍼스트 관계자, 발달장애인 등 3명)

1. 토론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발달장애인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비용이나 예산문제, 지원체계 문제로 끝나버리는 느낌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돈의 원리, 법의 원리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당사자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없는지, 또한 그러한 것을 정책이나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는지?
2.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6년에 탈시설 했는데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함. 지원시간을 더 늘려주고 대구피플퍼스트 예산도 더 늘려줄 수 없는지?
3. 은행이나 약국, 마트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쉬운 그림 자료 등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음

《답 변》

■ 강명숙(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

- 사업을 하려면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권리보장 보다는 예산 지원쪽으로만 얘기한다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음. 또한 정책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 수혜자 입장보다 공급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그런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음. 현장의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활동지원 부분은 지체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발달장애인들이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보니 인정점수가 낮아 활동지원급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음. 보건복지부도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니 향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함.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어 확대를 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피플퍼스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시행 첫해에 예정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피플퍼스트 활동과 열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음
- 은행, 병원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읽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나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